

# ‘평양시간’ 5일 ‘한국 표준시’로 변경

## 남북 판문점 선언 신속 이행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신속히 이행하고 나섰다. 군 당국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일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으며, 북한도 표준시인 ‘평양시간’을 한국의 표준시와 맞추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30일 “우리 군은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

## 오늘 대북 확성기 철거·전단살포 등 적대 행위 중지

세를 유지한 가운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정상회담 직후 서명한 공동선언문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북한도 이날 현재의 표준시인 ‘평양시간’을 한국의 표준시와 맞추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표준시를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동

경시(서울 표준시와 동일)에 맞추는 것이라고는 내용의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라는 정령(결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북과 남의 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라며 “평양시간을 동경 135도를 기준 자오선으로 하는 9경대시(현재의 시간보다 30분 앞선 시간·UTC+9)로 고친다”고 밝혔다.

이어 “평양시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지시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별도의 기사에서 평양 시간 변경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 배경에 대해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 국내의 해당 부문에서 이에 대하여 검토·승인할 때 대하여 제의하신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북과 남이 하나로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르고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고 서로 맞추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의 화해·단합의 첫 실행조치로 현재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시간을 통일하는 것부터 해나가실 결심을 피력하시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표준시 변경 결정은 남북간에 서면으로 이뤄진 합의가 아님에도 남북의 ‘대외적인’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으로 남북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 광주시 ‘지정대리’제도 문제 있다

## 감사원 “인사 업무 공정성·투명성 훼손” 경고 “완도군 등 ‘지역분할’ 수의계약 금지기준 마련” 주문

광주시가 운용중인 ‘지정대리’ 제도가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30일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별도정원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3급급 4급 간부를 다른 기관으로 파견한 뒤 공석이 된 국·과장급 자리에 직무대리를 지정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지정대리를 우선 승진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국·과장 지정대리는 대리기간 중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국장급 월 60만원, 과장급 월 35만원)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승진자 대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

부합동감사 결과 이같은 지정대리 제도가 부당한 인사제도라는 판정을 받았다. 직무대리는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데 지정대리 운용을 통해 승진자 대우를 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전임 직

거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상 정해진 승진 절차를 위배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정원과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광주시에게 경고했다. 이와 함께 감사반은 광주 어등산 리조트가 대중제(9월) 골프장 순수익금의 사회복지 장학재단을 통한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익금 처리도 불투명하게 해온 사실을 밝혀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기관경고,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군산시·나주시·남원시·무안군·영암군·완도군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이날 공개해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지역을 나누는 방식으로 2000만원 이하 여러 개 사업으로 쪼개 수의계약을 했다며 행정안전부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들 6개 지자체의 2008년 이후 업무

전반을 감사해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49건을 적발,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오광록기자 kroh@



## “문재인·김정은 노벨평화상 후보 1위”

### 英 유력 배팅업체 꼽아

영국의 유력 배팅업체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 예상 후보 1위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꼽았다. 노벨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정상상에 이어 2위 예상 후보에 올랐다.

영국 정부 공인 대형 도박업체의 하나인 레드브룩스는 27일 정상회담을 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배율을 1.67배로 예상, 2위 이하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이는 두 사람의 공동수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NHK가 지적했다.

두 사람에게 이어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능한 관광지점 승인 후 입장권 매입 실적, 무료관광지 무인계측기, CCTV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전남도는 2016년 4279만명을 기록한 뒤 2018년 5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으나 1년 앞당겨 달성했다.



## 무안-오사카, 방콕, 다낭 신규 취항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무안-일본 오사카, 태국 방콕, 베트남 다낭 신규 취항식에 참석한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윤장현 광주시장,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 권욱 도의회 부의장, 장영식 무안군수 권한대행, 승무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 관광객 5천만명 돌파...여수 1508만명 전국 1위

## 지난해 5079만명 찾아 경기도 이어 2위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사상 최초로 5000만명을 돌파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이 발표한 ‘2017년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는 5079만명을 기록, 경기도(7643만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시·군별로는 여수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문화관광연구원 통계는 증빙자료 확인이 가능한 관광지점 승인 후 입장권 매입 실적, 무료관광지 무인계측기, CCTV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전남도는 2016년 4279만명을 기록한 뒤 2018년 5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으나 1년 앞당겨 달성했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가장 많은 1508만명이었으며 순천시 907만명, 담양군 279만명, 목포시 259만명, 구례군 249만명 등을 기록했다. 여수시는 2013년 공식 통계조사 시작 후 출근 1위였던 경기 용인시(1270만명)를 제치고 전국 최다 방문지로 등극했다. 관광지별로는 ▲순천만 국가정원(612만명)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357만명) ▲여수 오동도(315만명) ▲여수 돌산 공원(266만명) ▲담양 죽녹원(139만명) 등이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관광객이 전년보다 800만명이 늘어난 것은 KTX, SRT 등 교통편 개선을 활용해 수도권 등에서 벌인 순회 홍보가 주요한 것으로 전남도는 자평했다.

남도명품길 등 관광자원 개발, 관광문화 축제 육성, 관광 순환 버스 ‘남도 한 바퀴’ 등도 지역 관광 활성화에 한몫했다. 전남도는 올해 신안 새천년대교 개통, 2020년 흑산도 소형공항 개항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섬 특화 관광 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무안공항 해외 정기 노선, 여수항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여행도 확대돼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게 한다.

방육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을 맞이한 시점에 관광객 5000만 시대를 열어 의미가 더하다”며 “올해 ‘전라도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전남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완도 고금도 관왕묘비 등 道 지정 문화재 지정

전남도는 완도 고금도 관왕묘비 등 5건을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왕묘비 외에 순천 송광사 감로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복장유물, 화순 광산이씨 승지 공비, 보성 도촌리 분청사기 요지, 전남 의례음식장 혼례 음식(보유자 최윤자) 등이다.

전남도 유형 문화재 334호로 지정된 송광사 좌상은 1624년 광원암에서 응원(應元)이 9명과 함께 조성한 불상이다. 조성 연대와 조각승 등을 알 수 있고, 불상의 조각적 특징도 분명히 드러나 17세기 후반 불상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형 문화재 335호인 화순 승지공비는 율곡 이이가 비문을 짓는 등 당대 문장가, 명필가가 조성에 참여한 점에서 가치가 있다.

유형 문화재 336호인 관왕묘비는 조선 시대(1713년)에 세운 비로 이이명(1658~1722)이 비문을 짓고 삼도 통제사 이우항(?~1722)이 글씨를 쓴 금석

문 자료다. 전남도 기념물 250호 보성 분청사기 요지는 유적이 양호하게 남아있고 출토 유물도 전남을 대표하는 기법인 덩벙 분장을 잘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도 무형문화재 42-2호로 지정된 혼례음식은 전승 계보가 확실하고 특히 폐백음식은 재료 선정, 도구, 제조기법에 있어 전통을 잘 계승했다.

전남도는 신안 상태서리 고분군, 보성 개흥사지, 조선장(보유자 고길오), 장흥 김응원 각예비, 함평 보림정사 목조여래좌상, 고흥 김봉만 선무원종 공신녹권과 신위단비 등 6건을 지정 예고했다.

지정 고시된 문화재는 앞으로 30일간 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뒤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본사인사  
▲배영재: 중부취재본부 화순주재 기자 (5월 1일자)

#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혈당조절

##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지방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시간~ 하루 2번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약!!!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 급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 감정가 40%이하 급 모델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 감정가 30%이하 급 모델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

## 펜션·가든 부지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